

# 북 스

Books



## “내 생애는 감각의 노예였다”

눈빛만 스쳐도 여성들의 마음을 졸이게 하는 최고의 ‘작업남’들에게 우리는 흔히 ‘카사노바’라는 칭호를 수여(?)한다. 도대체 카사노바가 어떤 사람인가?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자될까.

‘카사노바 나의 편력’(전3권)은 18세기 유럽의 여인들을 설레게 했던 ‘세기의 바람둥이’ 조반니 자코모 지타라모 카사노바(1725~1798)의 회고록이다. 베니스의 유명한 배우의 아들로 태어난 카사노바는 일생 동안 유럽 전역을 여행하고 곳곳 문화와 ‘여자’를 체험했다. 여성들의 열기 행각으로 징집같이까지 했던 ‘난봉꾼’이지만, 17세의 나이에 박사학위를 딴 천재이기도 했다.

이 책은 ‘카사노바의 회고록’ 원본 12권 가운데 재미있는 장면만 골라 편역자 김석희가 3권으로 압축한 것이다. 시오도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를 번역한 것으로 유명한 편역자는 작품 사이사이 카사노바의 다른 작품 ‘파옴비 탈옥기’, ‘옛 사랑의 그림자’ 등에서 발췌한 글을 넣어 이해를 도왔다.

유럽 전역을 여행했던 카사노바는 1755년 교황청에 체포돼 5년형을 선고받고 베니스의 파옴비 감옥에 갇히지만 “나를 이곳에 가둘 때 나의 동의

를 구하지 않았듯이, 나도 동의를 구하지 않고 나가노라”라는 말을 남기며 탈옥한다. 첫조각을 이용해 바닥을 파내려 간 그의 행동은 영화에서도 볼 수 있을 법한 것이었다. 당시 있었던 일은 ‘파옴비 탈옥기’(1787)라는 책으로 출간된다.

카사노바가 회고록을 쓰게 된 이유는 그의 화려했던 삶에 비해 다소 쓸쓸하다. 도서관 사서로 말년을 보냈던 둑스(현재 체코의 한 지방)의 성(城)에서 절대 고독에 훈련되었던 그에게 하루 13시간 이상 매달렸던 회고록은 그가 즐길 수 있는 유일한 놀이였던 것이다. 그에게 있어 ‘관태로운 시간은 낭비’이기 때문이다.

책 속에는 카사노바가 일생 동안 지나왔던 베니스에서 파리와 런던, 베를린을 거쳐 페테르부르크와 마드리드에 이르는 다양한 도시들과 인간 군상이 펼쳐진다. 책은 한 인간의 단순한 일생을 다룬 기록의 의미를 넘어 18세기 유럽의 풍속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문학적 사료 역할도 하고 있다.

〈한길사·각권 1만5천원〉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카사노바 나의 편력** 김석희 편역



‘세기의 바람둥이’ 회고록

베니스·파리·마드리드…

18세기 유럽의 풍속 생생

등으로 묘사된다. 무엇보다 “미치도록 여자를 사랑했지만 언제나 여자보다 자유를 더 사랑했다”고 말한 자유인이었다.

유럽 전역을 여행했던 카사노바는 1755년 교황청에 체포돼 5년형을 선고받고 베니스의 파옴비 감옥에 갇히지만 “나를 이곳에 가둘 때 나의 동의

어른이 돼버린 피터  
다시 모험을 떠나다

‘돌아온 피터팬’



‘피터팬’의 작가 제임스 매튜 배리(1860~1937)는 죽기 전 소설 ‘피터팬’의 모든 권리를 오몬드 아동병원에 기부했다. 지금까지도 책의 판권과 저작권 관련 수익은 모두 병원 재단으로 돌아가고 있다.

병원 측은 2004년 ‘피터팬’의 후속권을 쓰게 될 작가를 공모했고, 200여명의 후보를 제치고 영국의 동화작가 세필립 매커린이 선정됐다. ‘돌아온 피터팬’은 이렇게 탄생했다.

공식 속편 ‘돌아온 피터팬’은 원작의 20년 뒤 이야기에서 시작한다. 영원히 늙지 않을 것 같은 ‘네버랜드’의 피터도 어른이 돼버린 것이다. ‘네버랜드’에서 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역시 어른이 돼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웬디 일행은 다시 모험을 결심한다.

‘돌아온 피터팬’의 출간과 함께 원작인 ‘피터팬’도 완역본 개정판이 나왔다.

〈김영사·각권 9천500원〉



독살의 세계사 미즈호 레이코 지음

독약의 박물지 다치키 다카시 지음

은밀하게 살인을 저지르기 위한 도구인 독약(毒藥)은 고대로부터 애용되는 치명적인 약물이다.

독살을 피하기 위해 조선왕조의 임금들은 은수저를 사용했고, 로마 황제들은 예외 없이 음식을 먼저 맛보게 하는 노예를 두고 있었다.

터키 서부 폰토스 왕국의 미트라다테스 왕은 독살을 피하기 위해 소량의 독을 먹음으로써 면독성(免毒性)을 길렀다. 그는 로마에게 나라를 빼앗기자 치

를 피하기 위해 음독했으나 면독성 때문에 죽음에 이르지 못하자 칼로 자결하기도 했다.

독(毒)에 얹힌 세계사의 인물과 사건을 조명하는 ‘독살의 세계사’와 신화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독살에 사용된 약물과 에피소드를 묶은 ‘독약의 박물지’가 나란히 출간됐다.

일본 작가 미즈호 레이코가 쓴 ‘독살의 세계사’는 이를 네로를 로마 황제로 만들기 위해 남편을 독살한 아그리피나를 비롯, 역사적인 독살 사건들을 조명하고 있다.

아그리피나는 클라우디우스 황제를 ‘확인사살’을 통해 죽인다. 음식에 소량의 독을 타 황제를 중독시킨 뒤 미리 매수한 의사의 시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다.

이처럼 절대권력자의 주변에서 펼쳐지는 독살은

물론 범부들의 애증 때문에 빚어지는 참극에 등장하는 독살 사건이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일본 작가 다치키 다카시가 쓴 ‘독약의 박물지’는 독약에 대한 이야기를 집대성한 ‘독약전서’이다.

저자가 소개하는 ‘독살문’에는 보석 사이에 독침을 끼워넣어 약수하는 상대방을 죽이는 죽음의 반지와 칼자루를 핏값 쥐면 독침이 뛰어나오는 독칼 등 기상천외한 독약 주입방법이 등장한다.

키르케의 독초, 페스트와 독약에 얹힌 사연, 나폴레옹 독살설, 옮진리교와 사린 가스 등 저자는 신화, 역사서 뿐만 아니라 소설이나 영화,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까지 모든 종류 독약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해나무·각권 9천500원〉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 마사이족 워킹슈즈



- 무릎관절, 요통, 비만
- 평발, 어깨통증
- 장시간 서 있거나 많이 걷는 분
- 국내특허 획득
- 로얄티 없는 저렴한 가격
- 탁월한 효능과 내구성

광주매리점 (백운동 국제호텔 옆1층)  
Tel.(062)653-7572 / H.P 017-397-7572

스포츠화  
147,000원  
캐쥬얼화(신사화)  
197,000원

유동사거리 한국노총옆 금남로점

황토 쉐 침대

www.hsell.co.kr

T. 1644-8235

메이저 Q

199만원!!

더 좋은 쉐침대  
세계의 명품!!

건강과 행복을 드려요~

면 패드

+ 3단협탁

노동부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 현대직업전문학교

[최고의 교수진, 일찬 교육, 최상의 시설]

재직자과정	교육 내용	개 강
주택관리사	최종 마무리 특강 (1차 과목)	11월 1일 (월~금 19:00~22:30)
정보화기초-1	원도우, 인터넷, 문서편집활용	11월 6일 (월~금 19:00~21:00)
정보화기초-2	엑셀, 파워포인트, 컴퓨터활용	11월 6일 (월~금 19:00~21:00)
사무자동화	문서편집활용, 엑셀, 파워포인트, 컴퓨터활용	상담후 결정

### 기타사항

- 고용보험가입 직장인 선착순 정원제 모집
- 수료 후 100~80% 환급
- 수강절차

훈련 상담▶훈련수강신청서작성▶훈련기관에 제출▶수강

■과정 의학행정: 1, 2, 5, 8, 9, 15, 19, 20, 22, 34, 55, 111, 117, 222, 555, 395, 777

■전산화재: 3, 11, 27, 38, 55, 111, 118

■애설의 가치입구: 2, 6, 11, 25, 28, 30, 118, 222, 518, 666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위치 : 전남여고건너편 (김제규경찰학원 내)

224-4560, 232-1088

## 공무원 아간반 첫진도

공무원 이론반 첫진도 개강 11월 1일

★ 행정/서무/교육행정/검찰/교정직 -주/야간반 운영★

무등고시학원 동부경찰서점 222-4560

두배빠른 공무원 합격시스템 - www.hanbitgosi.co.kr

2007 국가직/ 지방직 대비

법원/검찰직 박종연 손동규 이규태 최강

농업직 농촌지도사 농업연구사 양승률 교수팀

개강 11월 1일 (홀/짝수반 매월 첫진도 개강)

한빛공무원학원

북구청 건너편 전남대 후문앞 234-0234